



석유 · 가스 자주개발률 금년 5.7%, 2012년까지 18.1% 달성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자원외교 쟁전다

정부는 석유 · 가스 자주개발률을 금년도 5.7%, 2012년까지 18.1%를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4대 지역을 중점 진출 전략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통령,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자원확보를 위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석유 · 가스 자주개발률 : ('07) 4.2% → ('08) 5.7% → ('12) 18.1%

지식경제부는(장관:이윤호)는 전날(3.17)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3.18(화) 이윤호 장관 주재하에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석유공사, 광진공, SK에너지 등 자원개발 관련 40여 공기업 및 민간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제5차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제5차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3.18(화) 12:00~13:30, 서울 리츠칼튼호텔 금강룸
- 참석 : 장관, 자원개발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 지원기관장 등 40여명
- 주요내용 : 해외자원개발정책 발표, 정책건의 및 토론 등

〈해외자원개발협회 현판식 및 해외자원개발기업 애로 지원센터 개소식〉

- 일시 및 장소 : 3.18(화) 11:30~11:40, 해외자원개발협회(강남 흥우빌딩 16층)
- 참석 : 장관,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단 및 이사 등 15여명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전략」

1. 금년도 자주개발률 5.7% 달성

일산 4.6만배럴의 추가 자주개발물량을 확보해 금년도 석유 · 가스 자주개발률 목표 5.7% 달성

구 분	'07년	'08년	'07년 대비	
자주개발률	4.2%	5.7%	1.5%p ↑	
자주개발량	일산(b/d)	12.5만b/d	17.1만b/d	4.6만b/d ↑
	연산(b/y)	4,570만b/y	6,240만b/y	1,670만b/y ↑

이를 위해 지난 1월 석유공사 등이 인수한 미국 멕시코만 생산유전(17천b/d), 콩고 엠분디 유전(4.4천b/d)과 같은 신규 생산유전 인수를 적극 추진

* 미 멕시코만 유전(지분매장량 6,100만배럴, 100% 지분, 17천b/d), 콩고 엠분디(지분매장량 2,900만배럴, 11% 지분, 4.4천b/d) 유전 인수로 21천b/d(781만b/y) 자주개발물량을 확보 → 자주개발률 0.7%p 상승

또한, 브라질 BMC-8 광구, 베트남 15-1 광구 등 기존 생산광구의 증산 및 개발광구의 생산광구 전환을 지원

2. 2012년 자주개발률 18.1% 달성

일산 약 45만배럴의 추가 자주개발물량을 확보해 2012년 석유 · 가스 자주개발률 목표 18.1% 달성

구 분	'07년	'12년	'07년 대비	
자주개발률	4.2%	18.1%	13.9%p ↑	
자주개발량	일산(b/d)	12.5만b/d	57.2만b/d	44.7만b/d ↑
	연산(b/y)	4,570만b/y	20,865만b/y	16,295만b/y ↑

금년 중 32억배럴 규모의 유망 탐사광구를 추가로 확보해 추정 확보매장량을 200억배럴('07년 168억배럴)로 확대함으로써 2012년 자주개발률 18.1%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123개 해외유전개발 프로젝트*가

정부정책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나이지리아 심해 해상광구, 우즈베크 아랄광구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생산광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

* 생산단계 34개, 개발단계 12개, 탐사단계 77개

** 탐사 중인 대형 프로젝트(예시) : 러시아 서캅카스(15억 배럴), 나이지리아 심해 해상광구(12억배럴),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4억배럴), 우즈베크 아랄광구(3억배럴)
【 ()는 우리측 지분을 감안한 추정 매장량】

이를 위해 러시아·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4대 중점 진출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 총리 등 정상급 자원 외교 강력히 전개해 우리 기업의 유망 프로젝트 확보를 밀착 지원

* 4대 전략지역은 전 세계 유전·가스 매장량(24,252억배럴)의 약 40%(9,367억배럴)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미 자원선점이 이루어진 중동에 비해 개발수요 및 잠재역량 풍부

또한, 금년에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칠레 등 22개국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볼리비아, 에콰도르, 앙골라 등 6개국과는 첫 자원협력위를 개최할 계획

* 러시아와 협의하여 국장급 한·러자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위원회로 확대 추진

아울러, 패키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자원외교의 핵심 아젠다로 자원부국에 제시하여 상호 Win-Win하는 협력모델 정착

자원부국의 니즈를 고려한 국가별 동반진출 프로그램을 폭넓게 발굴하여 발전소 등 일부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협력 분야를 건설·플랜트·기간산업·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특히, 범 정부차원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여러 부처 관련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지원

* 위원장 : 지식경제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수출보협공사 등 지원기관장 등

■ 생산광구 인수 등에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도 지속 확충

•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12년까지 1.4조원 이상으로 확대 ('08년 9,097억원)

• 매년 5천억원, '12년까지 2.5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 신규 출시('07년 3,300억원)

•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을 '12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08년 6,000억원)

•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 유도 등 다양한 투자재원 조달 추진

■ 자원개발 공기업이 세계적인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출자 확대와 대형화를 통해 규모·수익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원개발 공기업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정부정책

을 제정('08.2.21)하여 해외 고급기술인력 채용 촉진, Agent 활용, 성실한 실패에 대한 책임 면책(경감) 등 해외사업 경영 및 조직·인력 운영의 탄력성 부여

* 공기업 경영평가시 해외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 확대(현재 평가비중 : 석유공사 18%, 광진공 15%, 가스공사 7%, 한전 2%)

- 인력·기술·정보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인프라에도 과감히 투자
- (전문인력)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운영('09~, 대학별 10~20억원, '09년 5개 대학 내외)
- (기술개발) 핵심기술에 대한 산·학·연 공동 R&D를 적극 지원

* 자원개발 R&D 예산 : ('08) 153억원 → ('12) 300억원 (심해·극지 석유개발 기술 등을 지원)

- (정보강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고급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별 해외자원개발 정보시스템을 통합 연계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개요

- 목적
 -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하여 에너지 인프라(전력·가스 등), SOC, 기간산업 등 동반진출(패키지형 자원개발) 촉진
 - 자원개발 기업, 동반진출 기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동반진출 방안 모색·추진
- 연혁
 - 제3차 에너지자문회의('05.9)시 구성·운영계획 발표

-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출범('06.2)
- '07년까지 4회를 개최하여 동반진출 협력방안 및 사업을 추진
-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신설('08.2)하여 협회 주관 협의회로 확대·발전

* 종전 석유공사에서 에진협 사무국 기능 수행

- 구성
 - 자원개발 공기업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진공, 한전, 지역난방공사 등
 - 자원개발 민간기업 :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물산, 포스코 등
 - 지원기관 : 플랜트협회,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KOTRA 등

※ ('06. 2, 창립회원) 14개 기관 → ('07말) 24개 기관 → ('08.2) 41개 기관

〈참고 3〉 에너지산업 해외진출협의회 회원사

구분	회사(기관)명	대표
에너지 공기업 (5)	한국석유공사	사장 황두열
	한국가스공사	사장 이수호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이한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영남
자원개발기업 (20)	SK에너지(주)	부회장 신헌철
	GS칼텍스(주)	사장 명영식
	삼성물산(주)	사장 지성하
	(주)삼탄	부회장 강태환
	한화	사장 양태진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이상옥
	한국투자증권(주)	대표이사 유상호
	LG상사(주)	대표이사 구분준
	POSCO	사장 윤석만
	(주)대우인터내셔널	사장 강영원
삼천리	사장 이영복	



구분	회사(기관)명	대표
자원개발기업 (20)	대성산업	사장 장석정
	금호석유화학	사장 기 옥
	서울도시가스(주)	사장 안병일
	현대종합상사(주)	사장 노영돈
	SK가스(주)	대표이사 김치형
	(주)GS홀딩스	대표이사 서경석
	SK E&S(주)	사장 김종호
	(주)경동	대표이사 이강문
동반진출 기업 (11)	SK네트웍스(주)	사장 정만원
	LS니고 동제련(주)	부사장 이국호
	대우조선해양(주)	사장 남상태
	현대중공업(주)	사장 최길선
	경남기업	사장 장병두
	대림산업(주)	부회장 이용구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백석봉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김종신
	우림자원개발(주)	대표이사 원완권
	현대하이스코(주)	부회장 김원갑
지원기관 (5)	(주)STX	부회장 이종철
	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정연주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조환익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양천식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회장 윤영석
	KOTRA	사장 홍기화
	한국산업은행	총재 김창록

반면,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등록이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여 이들 특허를 기업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할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금번 특허이전 설명회에서는 대학 및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내용을 사전에 조사, 중소기업에 배포하고 업체에서 관심을 표명한 특허만을 선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52개 대학 및 연구소의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 리스트를 파악해 업체가 관심이 있는 13건의 특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전국 52개 TLO*대학 및 연구소(전자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의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리스트(총 182건 : 157건, 25건) 업계 수요파악
[cf.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 기술이전조직]
→ 한국디스플레이협회 회원사 대상 관심특허 표명건수 : 13건

디스플레이 원천특허 기업이전 활성화 추진
- 지식경제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 설명회 개최 -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원천특허 기업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3월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등 학계 및 연구소 보유특허의 중소기업 활용방안을 위한 디스플레이 특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8.85%씩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04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특허지원정책 및 특허가치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경제부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대학 및 연구소의 보유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사업화를 위한 R&D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디스플레이 분야의 원천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이전 사업을 반기별로 지속 개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